

환경정책동향

정한도 /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수빈 /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한 대기관리정책

대전시는 계곡산과 식장산, 그리고 보문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도시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도시의 빌딩숲에서 방출되는 폐열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

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도시외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한 대기관리정책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 CDM사업, 대기환경기반시설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친환경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자동차(CNG)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02~2012(13년) / 사업량 : 시내버스 965대 - 사업비 : 총38,2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저공해자동차 보급(하이브리드, 전기이륜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06~2008년(3년) / 사업량 : 1,107대 - 사업비 : 5,76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버스 965대중 505대를 CNG버스로 교체(52.3%) · 지난해 처음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하이브리드 13대, 전기이륜차 14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148대) 및 엔진개조(81대)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CNG) 자동차 보급(91대 / 2,085백만원) · 저공해 자동차 보급(하이브리드 10, 저공해경유차 16 / 365백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장치부착160, 엔진개조 198 / 1,544백만원)

다음으로, 대기환경기반시설 확충 및 강화이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전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골고루 설치하여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측정망의 대표성 제고 · 2007년 계획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종합대기 측정소 설치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02년부터 측정망을 매년 1개소씩 확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지점 12개 측정망 보유(대기 7, 중금속4, 도로변 1) – 지난해 처음으로 둔산지역(서구청 옆)에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설치 ※ 11개항목 24시간 자동측정(SO₂, O₃, NO₂, CO, PM₁₀, 벤젠, 풍속·풍향, 온도, 습도) · 대전시 홈페이지를 이용, 대기정보 실시간 공개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측정망(도로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07. 2~12 / 사업비 248백만원(국76, 시 172) – 설치장소 : 서구 또는 유성구 – 측정항목(9개 : SO₂, O₃, NO₂, CO, PM₁₀, 벤젠, 풍속 등) · 종합대기측정소 설치, 대기오염물질 집중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측정망(대기·중금속·유해대기·산성강하물질) 통합운영 – 설치장소 : 구성동 측정소 / 사업비 : 160백만원(전액국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이다. CDM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는 금고동매립장에서 포집하는 매탄가스를 이용한 LFG발전소운영이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선진국 감축량으로 허용 · 개도국이 단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도 개도국 감축량으로 인정 (2005. 2, CDM EB에서 결정)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동 매립가스(LFG)발전소 운영(연간 90백만원 재정수입 증대) ·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CDM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CDM 사업자 선정, 국제기관 검증을 거쳐 국가인증 심사 중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유엔 CDM EB에 사업등록 및 온실가스 저감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사업비 : 60백만원 ⇒ 2007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에 판매 / 연 15억원 수익예상

한편, 이외에도 대전시에서는 대기관리정책의 일환으로서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간 환경개선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단주변을 중심으로 대전시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는 환경정화수 식재,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초기 강우 유출에 의한 비점오염원(CSOs)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불명수 차단 및 계곡수 회귀로 하천 수질개선 및 유지용수가 활용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거정비 BTL방식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해서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적기투자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의 정비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BTL (Built Transfer Lease)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TL 사업이란 민간투자확대를 위하여 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일괄담당하게 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서구 월평동 일원,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일원, 대덕구 회덕동과 오정천 주변 지역이 해당대상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401억원으로 국비지원은 시설임대료 30%와 운영비 10%으로 구성될 계획이다.